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회와 회절의 정치*

김은주**

| 목차 |

1. 들어가며: 다중위기 시대 그리고 괴물들의 약속
2. 비인간 전회(Nonhuman Turn): 주체에서 행위자로
 - 1) 비인간전회에 관하여
 - 2) 행위자-네트워크
3. 행위자들의 얽힘을 드러내는 회절
- 1) 회절
- 2) 간섭의 패턴을 그리는 회절
4.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 (inappropriate/d others)과 회절의 장소
5. 나가며: 인정의 정치를 넘나드는 회절의 정치

| 초록 |

이질적 현상들의 복합 위기를 뜻하는 다중 위기의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지구 행성적 재난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 글은 '비인간전회'를 통과해 다중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이행을 모색하는 행위자(actor)와 그 연결을 살핀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인간 전회의 의미를 짚고,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개념을 해러웨이가 제안한 광학적 기구가 행하는 회절(diffraction)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행위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의 중첩과 얽힘 그리고 연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간섭의 패턴으로서 회절이라는 개념과 연관한다. 이러한 회절은 바라드의 양자적 이해를 통과해 중첩과 얽힘 그리고 전유할 수 없는 타자들의 간섭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3521) 2023년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글임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dawnbright@hanmail.net

8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화와 회절의 정치

한 패턴으로 구체화된다. 바라드는 이러한 얽힘이 타자화의 흔적에 얽매어 있는 관계 이기에 다른 것과 얽혀 있는 의무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바라드는 특히 회절의 특징은 모호성과 미결정성을 강조하며 이분법적 사유를 넘어서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 연결을 강조하는 회절의 정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다중위기, 바라드, 비인간전화, 해러웨이, 행위자-네트워크, 회절

1. 들어가며: 다중위기 시대 그리고 괴물들의 약속

프랑스의 사상가인 에드거 모랭(Edgar Morin)은 20세기를 야만의 세기로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세기로 진단한 바 있다. 불확실성의 세기는 경제적 기술적 진보가 사회 정치적 도덕적 성장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라는 단순한 진보 개념과 역사의 예정된 진보를 필연성으로 바라보는 목적론을 폐기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모험으로 역사를 이해하면서 사회 현상의 다차원적 성격과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버린 인간 존재의 상황을 제시한다.(모랭, 1999)

모랭(Morin)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중위기(Multiple Crises)로 나타난다.(Morin& Kern, 1999) 다중 위기는 “다른 모든 문제가 종속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거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난, 적대감, 위기, 통제되지 않는 과정, 지구의 전반적인 위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모랭& 케른, 1999: 74)이다. 위기는 생태학적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사회 위기, 지식과 교육의 위기 등 다종의 복합적이지 복수적인 것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 없고 지구 행성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결국 다중위기는 분리될 수 없는 이질적 현상들로 연결되어 일어나는 지구 행성 차원의 복합 위기이며 보편과 추상으로 수렴, 환원될 수 없는 복수의 특이성과 우연성으로 겹쳐진 위기로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 위기의 상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을 기점으로 행성적(planetary) 재난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팬데믹과 포스트 팬데믹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디지털 기술의 의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의 접근과 활용 그에 따른 경제적 구조의 양극화를 심화했다. 이 뿐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체제로 인한 각국의 정치 위기는 국제질서의 균열로 이어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등 세계의 ‘화약고’가 폭발하는 대리전 형태의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해 민간인들의 학살과 살 곳을 잃은 난민들이 점점 더 증가한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동과 생태계 교란이 보여주듯 기후 위기는 지구 행성의 심각한 위기이다.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지적처럼 “오늘날 주요 문제인 지구온난화와 팬데믹은 중대하게 연결”(라투르, 2021:12-13)되어 있기에 코로나를 이어 넥스트 팬데믹을 맞이하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출현과 보건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와 재난 상황이 불안과 증오 그리고 사회적 우울을 가속화하면서 우리 삶을 포위하는 다중위기의 시대가 동시대의 풍경이다.

그렇다면 다중위기 시대, 어떻게 행위 할 것인가? 앞서 다중위기를 제시한 모랭은 어떤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그 장소 바깥에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주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재난의 상황에 실재적으로 대처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호소한다. 이는 인간이 더 이상 주체만이 아니라 대상이자 객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근대의 이분법의 논리에서 벗어나 세계의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을 이해하고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르게 사유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모랭이 다중위기를 예측한 1999년 보다 앞서,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1992년에 쓰여진 「괴물들의 약속」에서 20세기 후반 인간과 동물, 유기체와 기계,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과정 중에 등장한 경제적 피조물인 ‘괴물’을 조명한다. ‘괴물’은 ‘자연’을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자원이거나 소유물, 투시법적 시선에서 읽어내야 할 비밀

스런 텍스트 혹은 계몽의 대상 그리고 대문자 ‘인간’으로 표상되는 서구 남성중심 문명에 상처 입은 어머니로 여기는 바를 반박한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설명은 자연을 마치 미리 거기에 존재하는 ‘용기’로 전제하며 자연과 문화, 자연과 인공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Haraway, 1992)

해러웨이는 영장류학에서 인간의 자연성과 본능을 대표하는 존재인 ‘원시인’으로 영장류를 은유하는 가부장적 내러티브의 정당화 매커니즘을 발견하고 비판하면서 자연의 ‘재발명’을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자연을 발명 하는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이다. 다시 말해, 지식은 언제나 ‘위치 지어진 지식(situated knowledge)’이며,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관찰하는 것이 달라지는 특정한 관점에 의존한 체화된(embodied) 실재라는 것이다.(해러웨이, 2007) 캐런 바라드(Karen Barad) 역시 해러웨이에게 동의하며, 지식 추구의 에로티시즘과 인식론적 유혹이란 은유를 바탕으로 한 기술과학의 상상 아래에서 비밀을 지닌 여성과 같이 그려지는 자연과 그러한 비밀을 밝히기 위해 위대한 기술자인 남성적 과학자를 주연으로 삼는 인식론적 각본에 문제를 제기한다. 더 나아가 과학이 자연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비밀과 숨겨진 상태라는 것이 없다면 과학과 기술의 역할은 어떻게 이해될지 묻는다.¹⁾(Barad, 2008)

해러웨이는 자연을 복수종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재생성’된 자연이자 “인공주의(artifactualism)”의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 자연의 풍경을 통과하는 여정을 제안한다.(해러웨이, 1992)²⁾ 이러한 자연은 허구이자 사실로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술과학의 실행들과 특정 시공간 속의 특정한 집합적 행

1) 바라드는 ‘얽힘entanglements’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 개념이 위와 같은 비밀의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한다.

2) 해러웨이는 모든 기술을 재생산기술로 가르친 조에 소피아의 영향을 강조하며 재생산이라는 용어를 생성이라는 용어로 바꾸길 제안한다.

위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이는 자연을 인간만이 아닌 행위자들의 구축물로 제시하고, 기술과학이 실행하는 생산은 탈자연화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특정한 생산이자 “재자연화”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자연화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의 자연/문화 이분법의 자연으로 되돌아가기를 결코 칭하지 않는다. 해러웨이는 자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연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물리적 장소도 아니고, 울타리나 독으로 에워싸야 할 보물도 아니며, 구원하거나 침범해야 할 본질도 아니다. 자연은 숨겨진 것이 아니며 따라서 드러내져야 할 필요도 없다. 자연은 수학과 생의학적 코드로 해독해야 할 텍스트도 아니다. 자연은 기원, 재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타자’도 아니다. 어머니도, 유모도, 노예도 아니고,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모체도 자원도 도구도 아니다. 그러나 자연은, 보편적 주제들(themes)을 숙고하기 위한 장소로서 토포스(thopos)라는 수사학자들의 의미에서, 관습적인 주제이자 장소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자연은 공통의 장소(commonplace)이다. 우리는 우리의 담화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 기억을 구성하기 위해 이 주제에 의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은 17세기 영국에서 ‘토피크(topik) 신들(gods)’이 지역 신들(local gods), 즉 장소들과 민중들에게 고유한 신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면 수사학적으로 이러한 혼(spirits)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 거주하기 위해, 보다 정확하게는 공통의 장소, 즉 폭넓게 공유되고, 불가피하게 지역적이고, 세속적이고, 기운찬, 다시 말해 시사성 있는 위치, 현장(locations)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은 공적 문화를 다시 세우는 장소이다. 자연은 또한 말의 수사(trope)이자, 전회, 회전(trópos)이다. 자연은 형상, 구성물, 인공물, 운동, 전치이다. 자연은 또한 구성 이전에 존재할 수 없다.(해러웨이, 1992: 297)

이 글은 “지역/글로벌 괴물들”이 안내하는 “여기와는 다른 곳(elsewhere)”으로 향하는 해러웨이의 30여년 전의 여정에 2024년이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이라는 위치에서 동행하며 이를 ‘비인간전회’를 통과해 다중위기상황을 새로운 정치적 이행으로 모색하는 행위자(actor)와 그 연결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해러웨이가 언급한 “문자 그대로 ‘괴물(monsters)’이며, ‘보여주다(demonstrate)’라는 단어와 어근 이상의 것을

공유”한 경계적 피조물인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가 구축하는 새로운 배치의 가능성에 접근하여, 생산된 자연의 재생성(regeneration)의 체현된 현장(embodied location)에서 불확실성을 긍정하며 “패턴화된 비전(patterned vision)”을 얻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선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 네트워크 개념을 해러웨이의 여정과 겹쳐 읽고 해러웨이의 광학적 기구가 행하는 회절(diffraction)을 바라드의 양자적 이해의 방법을 통과해 중첩과 얽힘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중 위기 시대에 위치 지어짐(situated)을 강조하고, 이곳에서 상상의 다른 곳을 위한 ‘연결(connection), 체현(embodiment), 책임/응답능력(responsibility)’을 생산하기 위한 실행이자 회절의 정치의 모색이기도 하다.

2. 비인간 전회(Nonhuman Turn): 주체에서 행위자로

1) 비인간전회에 관하여

옥스퍼드 사전에서 전회를 뜻하는 영단어 “turn”은 애초에 비인간적 물질성과 움직임이 그 의미의 일부로 포섭하고 있던 것으로 서술된다. 15세기 중세 영어에서부터 앵글로 노르만, 라틴어, 그리스어에 뿌리를 둔 “turn”은 비인간적인 움직임과 변화를 포함하는 동작 명사이며, 맥락에서의 행위성이나 행동을 가리킨다.(Grusin, 2015)

리차드 그루신(Richard Grusin)에 따르면, 비인간적 전회를 기술할 때, 늘 “turn”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신체성과 운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투르적 의미와 겹쳐 “turn”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자면 번역(translation)이거나 사건 생성을 지시하는 매개(mediation)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³⁾

특히 이러한 전회의 방향은 시간의 측면에서 과거로 되돌리기(turn back)이자 미래로 향하는 실험이다. 전회가 가리키는 과거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왔는가라는 물음이며, 전회가 정향하는 미래는 인간중심주의의 선형적 진보로 미리 주어진 시간성에 이탈하면서, 비선형적 시간성 속에서 현재를 지금으로 지속시키는 미래의 시간성을 선취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전회의 의미를 강조하는 비인간적 전회는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1. 비인간적 전회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 대부분은 동물, 식물, 유기체, 기후 시스템, 기술, 생태계 등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이론적 지형에 있다.
2. 인간/비인간, 주체/객체와 같은 이원론을 거부한다.
3. 비인간 전회는 탈인간중심주의의 맥락이 있다. 인간적 특성을 다른 존재에 투사하여 인간으로 환원하여, “인간만이 가치와 의미의 근원이 된다는 오만한 가정”(샤비로, 2021:14-15)에서 벗어나, 인간이 실제로 알 수 없는 것에 관해 사변하거나 실험하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협상을 시도한다.
4. 자유주의 휴머니즘의 자율적 남성 주체가 가진 특권적 지위에 저항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비인간 전회에서 제일 중요한 관심은 인간중심주의가 상정하는 이원론과 이분법의 위계설정과 거리를 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이다. 이는 근대의 인간중심적 합목적성과 유용성으로 비인간 행위자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해온 인간중심주의의 도구화에서 벗어나, 비인간의 고유한 존재 방식과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자 세계에 대한 비인간의 참여를 적극적인으

3) 이에 관해 그루신은 비인간적 전회를 체화된 사유의 움직임으로 이해하고, 들뢰즈와 과타리의 “내재성의 평면the plane of immanence”이 작동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성과 움직임으로서의 전환이 갖는 체화된 감각을 “방향 전환turning toward”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방향전환, 무언가를 향한다는 것이 적극적인 대면이며, 길을 잃는 것,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인간에 관한 전통적 방식을 잃고 다른 많은 비인간적인 것들을 향해 시선을 둔 채 다가가는 것이다.

로 드러낼 방법으로서 행위성(agency)을 모색하는 것이다.

행위성에 관해 시몽동은 전개체화로부터 개체화 과정을 거치는 인간과 비인간의 공동 구성 혹은 존재 발생과 인공과 자연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에 관해 제시한 바 있다.(시몽동, 2021) 앤디 클락은 언어 이후의 인간 인지가 어떻게 체화된 비인간적 기술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는지 발견하고, 인간을 “자연에서 태어난 사이보그 natrual-born cyborg”로 규정하고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에서 인간/비인간의 혼종인 ‘사이보그’와 ‘사이보그적 행위성’ 개념을 제안한다.(클락, 2015; 해러웨이, 2002) 비인간적 전회에서 비인간의 행위성 등장은 사회구성주의와 상관주의(correlationalism)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⁴⁾ (김은주, 2023b)

2) 행위자-네트워크

행위성의 측면에서, 특히,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은 주체 객체의 이분법으로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여 행위성을 인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는 단언을 인간 중심주의로 비판한다. 행위자 네트워크(actor-network)는 사물을 주체에 의해 정립되는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관계를 이루는 물질(matter in relation)이자, 행위자로 설명한다. 여기서 “행위자(actor)는 기호학적 정의이며, 이는 행동하거나 타존재로부터 행위능력”이 부여된 무언가이다.(김은주, 2023a: 112)⁵⁾ 행위자는 기술, 자연, 제도 등 비인간 존재도 포함하며, 인간이 지닌 특별한 동기를 가정하지

4) 다시 말해, 이는 비인간 세계에 관한 지식이 인간의 지성의 선형적 범주와 상관관계에 놓이거나 매개되어야만 한다는 칸트적 상관주의에 관한 비판이다. (김은주, 2023b)

5)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행위자는 그레마스 기호학에서의 기호학적 정의인 행위소(行爲素, actant)이다. 행위소는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된다. 이는 스스로 행위 하거나 다른 존재로부터 활동을 부여받은 존재를 의미한다.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수행하는 것, 라투르에 따르면, “차이를 만듦으로써 사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Latour, 2005: 71) 행위자로 불리며, 차이를 생성하지 못하는 존재는 행위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 실재들(entities that do things)” (라투르, 1992: 241)이다. 행위자 네트워크의 존재론적 구성성분은 바로 행위력을 지닌 행위자이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외부에는 행위도, 행위자도, 행위성도 없다. 행위성을 지니는 사물인 행위자는 언제나 네트워크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루어, 네트워크로서 행동하며, 사실상 행위자는 (개체가 아닌) 행위자-네트워크다. “행위자가 무엇이나는 정의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시험들(trials)을 통해 그 행위자가 나타내는 수행들(performances)에 의해서 정의”되며, 나중에 이로부터 “그 행위자의 능력(competence)이 연역”(김환석, 2001: 209)된다.⁶⁾ 행위자는 “행위자-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비인간은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의 지위를 갖고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비인간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도, 그 자체로 행위 하는 것도 아니다. 행위자는 언제나 행위자인 동시에 네트워크이다. 비인간은 관계를 통해 작동한다. 행위자로서 비인간은 네트워크와 분리 불가능하다. ‘행위자’는 단독자가 아니며,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혼종적 네트워크로서, “나의 행위능력이란 나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숱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관계적 효과’”(홍성욱, 2010: 23)이다. 물론, 네트워크는 역동적이고 사라지기 쉬워서 안정적이지는 않으며, 행위자의 특성을 재정의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결국 행위자란 이종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다.

6) 바라드 역시 이러한 행위자에 관해, “세계 생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가자라는 응분의 권리(due)를 사물에 허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Barad, 2003)

이런 점에서 행위자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행위로 인계되거나, 후행하는 행위에 의해 변형, 굴절된다. 이는 행위가 자기-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타자성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생산적인 것임을 의미한다.(김홍중, 2022) 행위는 단일한 행위처럼 여겨지나,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고 선행하는 다른 행위자들이 이미 행하고 이어가고 행하고 있는 수많은 행위들로 채워져 있다. 하나의 행위는 다른 행위들로 겹겹이 쌓이고 넘쳐지는 관계에 있으며 그로부터 생겨난다. 이처럼 행위의 관계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행위자의 의도나 지향성과 같은 인간중심주의나 자유주의의 개인주의로 설명되거나 제어될 수 없는 타자들의 행위들과 얽혀있다. 이는 행위가 어떤 특정한 요소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투르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과소결정(under-determination)의 법칙을 따른다. “원인들은 단순히 계기를, 상황을 그리고 선행자(precedent)를 제공할 뿐”(라투르, 2005: 45)이다. 다시 말해, 행위의 원인은 행위 전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행위가 펼쳐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난다.

행위의 이러한 관계성에 의해 행위성이라는 개념은 다수의 분산된 행위들의 결과를 받아들여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행위성은 인간중심주의가 상징하는 능동적으로 하는 힘이라는 의미와 거리가 멀고, 다른 행위자가 하게 만드는 힘을 받아들임으로써 실행하는 바에 가깝다.(라투르, 2018) 행위는 언제나 나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다른 행위자의 행위 능력과 연결된다. 즉, 이렇게 행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것”(라투르, 2005: 50)임을 뜻한다. 행위는 다른 행위자들과의 얽힘, 겹쳐짐의 연결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3. 행위자들의 얽힘을 드러내는 회절

1) 회절

행위자 네트워크는 비인간을 행위자로 설명하고, 다수의 분산된 행위들로 인한 행위성을 제시한다. 행위성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의 연결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연결망의 양식은 결합들의 다양성과 양식들의 다수성을 지니며, 이러한 연결망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를 경유해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이시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른 방식으로 통과”(라투르, 2023: 104)해야 한다. 다시 말해, 라투르에게 행위는 순환을 가능케하는 연속성과 배치를 실행하는 불연속성이라는 이중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간섭의 패턴으로서 회절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절은 반사와 산란과 같이 파동의 현상 중 하나를 일컫는 물리학 용어이다. 회절은 파동이 다른 파동과 만나 겹쳐지거나 방해물을 만나 휘어지거나 퍼져나가는 파동 고유의 현상을 의미한다. 파동은 반사 혹은 반영(reflection)과 대조해 보며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반사나 반영은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이 진행하다가 두 매질의 경계면을 만날 때, 그 파동에 너지가 입사하는 매질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대상이 거울에 비친 상의 관계로 표상하는 것이 반사이다. 이러한 반사는 근대적 유클리드 공간을 전제하는 뉴턴의 입자설에 입각한 광학적 현상이다.⁷⁾

7) 뉴턴 물리학에 따르면 자연은 결정적이고 결정론적이다. 대상(object)은 일정한 경계와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며, 그것의 전체 미래(과거)는 주어진 시간(예: 대상의 위치 및 운동량) 내 기존 상태의 측정값을 기반으로 확실하게 예측(소급)될 수 있다. 상관적 세계관은 객관적 지식이 세계의 객관적 상태를 드러낸다고 본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원자 규모의 사건은 고전적 뉴턴 물리학으로 정확히 이해될 수 없었던 듯하다. 이를 연구한 물리학자들은 자연이 완전히 결정적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예측이란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이론을 이끌어낸다. 바라는 이러한 지점에 미루어 양자 이론이 존재의 결정적 본성과 엄격한 인과적 결정론

이에 반해, 회절은 좁은 틈을 통과하거나 방해물 뒤쪽으로 휘어 돌아 들어가는 현상,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넓게 퍼지는 현상으로, 간섭과 함께 파동을 입자와 구별 짓는 특성이다. 파동의 회절은 파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회절 효과는 방해물이나 틈의 크기가 파장과 비슷할 때 크게 나타난다. 소리 파동의 파장은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에 이르지만 빛의 파장은 수백 나노미터 밖에 되지 않아, 방해물과 문틈에 대해서 소리는 충분한 회절 효과를 보여주지만 빛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매우 작은 핀 구멍을 통과하는 빛은 큰 회절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회절의 가장 특징은 회절 하는 파동이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틈에 영향을 받아 다른 모양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해러웨이는 자신의 이론을 회절을 만들어내는 광학적 장치로 제안하고 회절을 지식생산 관행에 따른 차이와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효과로 재정의한다.(해러웨이, 1992) 해러웨이에 따르면, 이러한 광학적 장치는 남근주의자들의 판타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포르노의 시각으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된 회로인 재배치된 시각화 기술로 다른 필터를 작동시키며 간섭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회절의 장치이다.

회절의 장치로서 광학적 장치는 전망(vision)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계몽과는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는 시도”(해러웨이, 1992: 296)이다. 해러웨이는 회절이 일어날 때 스크린을 놓으면 빛이 지나가는 길이 기록되는 것에 견줄 수 있는 이론화를 모색한다. 해러웨이가 회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반사나 굴절이 만들어내는 전치된 동일성과 원본과 복사본이라는 위계적 서열을 생산하지 않고, 간섭의 지도를 그려내기 때문이다. 같은 모양을 재현하는 복제와 달리, 회절이 그려내는 패턴은 타자를 통한 변화, 타자가 끼친 효과의 나타남이다.

2) 간섭의 패턴을 그리는 회절

이러한 해러웨이의 회절 개념은 캐런 바라드의 양자 역학 논의를 통해 보다 중첩과 얽힘으로 구체화된다.(Barad, 2014) 바라드는 회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회절에서 차이는 모든 장소와 시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합적 다양성이자 존재론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회절의 어원인 라틴어 diffract-에서 알 수 있듯, 조각으로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다. 회절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며 분산한다.

2. 회절은 간섭의 패턴을 그려낸다. 그리고 이러한 회절 패턴은 차이가 나타나는 위치를 지도 그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효과가 나타나는 위치를 그린다. 회절에서는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진 파동이 보강이나 소멸을 일으키면서 공명하거나 상쇄됨에 따라 서로 다른 무늬가 만들어진다. 즉, 회절은 차이 생성적이며, 시간-공간 물질의 (재)구성에서 함께 절단 분리(cut)하며 차이를 생성한다는 점에 착목하는 것이다.

차이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그 내부에 다양체를 내포하고 있다. 차이 자체가 회절 된다. 회절은 모든 규모의 차이의 문제이며, 오히려 규모의 만들기과 다시 만들기(시공간을 물질화하기)의 문제이다. 물질의 각각의 비트, 시간의 각각의 순간, 공간의 각각의 위치는 (겉보기에) 이질적인 부분들의 중첩/얽힘으로 이루어진 다양체이다. 분리된 부분의 혼합이나 경계의 흐림이 아니라, 그 특이성의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거미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유한 물질적 역사성과 그것이 어떻게 물질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여기 안에서. 중첩.(바라드, 2014:175)

3. 이러한 회절 개념에 관해 바라드는 “물리학만큼이나 차이에 대한 페미니스트 이론의 두꺼운 유산에 많은 빛”을 강조하면서, 회절을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미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성

(시공간성), 새로운 회절 패턴을 만들기”에 방점을 둔다. 회절은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분화-융합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재)구성되는 구별-융합의 패턴을”따르며,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도, ‘오래된 것’을 남겨두는 것”도 없다. “여기-지금과 저기-저기 사이에는 절대적인 경계가 없으며,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롭지 않은 것도 없다.”(바라드, 2014: 168) 이는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다시 회절하고, 새롭게 회절 하는 것을 다시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바라드가 예를 드는 지렁이가 퇴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미 있어왔던 흙을 뒤집어 먹고 배설하고, 땅에 구멍을 파고, 헤집어 산소를 공급하여, 땅을 열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등 흙을 계속해서 뒤집어 내는 다양한 과정으로 회절을 이해볼 수 있다.

4. 회절은 “생동감 넘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유기/무기, 생물/무생물과 같이 가장 침전되고 안정화/안정화되는 이분법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현상”(바라드, 2014: 168) 이다. 바라드는 이분법 개념 자체를 문제 삼으며, 회절이 반사와 대조되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 특히 주체와 대상이 회절이라는 현상 혹은 사건 이전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체가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둔 한 고정점에서, 반사는 대상을 말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 이미지를 생산한다. 기하학적 광학은 타자를 부정, 결핍, 이질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타자에 대항하는 자아는 자신의 체계모니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 자아와 타자 사이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세운다. 자아(‘나’)는 항상 자기 자신만 볼 뿐 타자는 보지 못한다. 그러나 회절은 이중적 움직임으로, 여기서 “둘은 결코 이원성과 같은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분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는 결코 하나의 형태 또는 획일성으로 표현되지 않으므로 다양체를 배제하지 않는다.” (바라드, 2003: 801)

회절이 일으키는 내/외부의 유희는 자아/타자의 이분법과 단일성을 전제하는 자아 개념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양자 역학의 중첩과 얽힘 개념으로 자아를 설명한다. 중첩은 자타 이분법에 따른 대립이 아닌

물질에 여러 상태가 겹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의 겹침인 중첩은 측정하는 순간 겹쳐 존재하는 다른 상태들은 사라져 없어지며, 아주 멀리 떨어진 양자 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중첩에서 얽힘으로 바뀌는 양자 얽힘이다. 얽힘의 특징은 거리와 상관없이 양자들이 얽혀있고, 하나가 결정되는 순간 다른 것도 결정된다는 것이다. 양자 간의 영향 속도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양자 상태가 관측으로 확인되면 그와 동시에 다른 양자의 상태도 결정된다.

중첩과 얽힘의 양자 역학을 통해, 바라드는 확정적 상태나 측정(measurement)에 비결정적인 상태인 중첩을 자아에 적용하여 근대의 인간중심주의의 단일한 자아상과 달리, 자아를 “그 자체로 다중성, 존재와 존재의 중첩, 여기와 저기, 지금과 그때의 중첩”로서 설명한다. 중첩과 얽힘에 관한 사고 실험의 대표적인 예시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이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사고실험이다. 실험에서 고양이는 철로 만든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며, 이 상자는 한 시간 안에 동일한 확률로 붕괴 가능한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 가이거 계수기와 연결되어 있다. 방사능 물질이 붕괴되면, 가이거의 계수관이 방전되면서 망치가 떨어지고 그것이 독가스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깨뜨려 고양이는 죽게 된다. 이 실험의 핵심은 확률 개념에 있다. 양자 이론을 통해 주어진 시간 안에 방사능 물질의 원자가 붕괴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붕괴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실험의 시스템은 고양이와 방사능 물질의 운명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설정된다. 원자가 붕괴하여 고양이가 죽는 경우와 원자가 붕괴하지 않고 고양이가 사는 경우가 그 두 가지 운명에 해당한다. 슈뢰딩거의 방정식은 한 시간 후 이 얽힌 시스템의 전체 상태가 이 두 가지 상태의 ‘중첩(superposition)’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바라드는 중첩을 이해하는 정확한 방법은 고양이의 운명이 방사능의 원천과 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슈뢰딩거가 제안하는 것처럼 존재와 관련되어 고양이

와 방사능 물질 원자는 개별적으로 결정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실험에는 독립적이면서, 고양이와 생명 상태라는 개념들에 적절한 ‘지시대상(referent)’으로서 구체화되는 ‘고양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바라드는 고양이의 “생명 상태”를 측정/규정하는 방법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고 죽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생명 상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필수적인 규정 조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명 상태”는 제대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양자 역학은 표상주의의 형이상학적이 가정하는 단어와 사물이 지닌 본질적으로 한정된 경계, 속성, 및 의미라는 기본단위라는 논리를 해체한다. 바라드는 행위 실재론자로서 “생명 상태” 또는 “살아있음(aliveness)”은 관념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물질적 배열이라고 주장한다. 의미론/존재론적 비결정성은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특정한 개념들에 의미를 부여하여, “대상”과 “주체” 사이의 ‘단절(cuts)’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물질적 배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바라드, 2008)

5. 바라드에게 있어 물질과 담론은 상호구성적이다. 물질은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 자체는 회절 되고, 분산되고, 시공간적 물질의 반복적인 수행에 따른 물질화 및 퇴적 효과이며, 이미 발생했던 일의 흔적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흔적들로 꿰매어져”있다. 관찰 대상으로서 물질의 경계와 속성도 영원히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보어가 현상이라고 부르는 ‘대상’과 ‘관찰 기관’의 불가분성(분화된 불가분성), 즉 분리할 수 없는 부분과 함께 결정된다. 물질은 “행위, 즉 행위의 응집체로서 활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며, 물질로서 존재하게 하는 물질화(mattering)는 “물질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닫히지 않고, 우연적이고 일시적으로 결정되는(그리고 결정되지 않는) 것”(바라드, 2010: 266)이다. 이러한 물질화는 물질적 구성과 특정한 물질적 구성으로 구현된 특정한 배제적 실행을 지시하는 담론의 구

성이 상호 구성적으로 얽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라드는 이러한 얽힘의 실행을 내부-작용(intra-action)으로 지칭한다. 내부-작용은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독립된 실체 혹은 관계의 항을 전제하지 않는다. 관계는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 내적 관계이고 내부-작용을 실행하는 행위자 역시 현상 내부에 있다. 사실상 구분되는 행위자들의 출현은 내부-작용의 결과이며, 현상은 내부-작용이 실행하는 행위적 절단(agenial cut)이 있기 전까지 경계지어지지 않는다. 또한, ‘내부-작용(intra-action)’ 개념은 인과성과 행위성의 본질적 변화를 포함하여 인식론 및 존재론적 풍경의 변화를 수반한다.

내부-작용은 “결정론과 자유 의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낡은 선택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매우 비고전적인 인과관계”이며 “환원 불가능한 개방성을 구성”(바라드 2007: 74)한다. 내부-작용에 따른 물질화(mattering)는 물질을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의 위치에서 작동하는 내부-작용들의 산물로 제시한다. 또한 담론적 실행은 언제나 진행 중인 얽힘의 단순한 기록만이라, 지식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제약하는 지역적, 사회 역사적, 물질적 조건의 생산으로 제시한다.

6. 바라드는 이러한 얽힘이 “타자화의 흔적에 얽매어 있는 관계”이기에 다른 것과 얽혀 있는 의무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얽힘을 나타내는 회절은 ‘타자’의 형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자의 흔적과 효과가 그려내는 패턴이라는 점에서 ‘타자’에 대한 부채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타자’는 자아로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매이고 꿰어져 있고, 자아라는 정체성을 회절/분산하는 그 자체이다. 타자는 물질 세계와 분리된 보편적 초월이거나 자아와 완전히 구별된 변증법적 반대항이 아니며, 그 자체로 “서로 얽히고 설킨 차이의 관계(différance)”이자 차이의 생성이다. 타자에 대한 바라드의 논의는 윤리를 윤리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의 토대가 되는 개인주의를 비판하며, “자신과의 비밀관성을 수반”(바라드, 2010: 287)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바라드의 윤리는 “규격화된 타자를 올바른 규범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생생한 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다. 즉, 윤리에서의 책임은 자아의 단일한 정체성을 갖춘 개인이자 주체가 선택하는 의지나 의무와 무관하고, 의식의 의지에 선행하는 체현된 관계로부터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책임은 “신체에 나타나는 특정 패턴의 흔적, 즉 우리가 속한 세계의 다양한 물질화 패턴”에서 비롯하며 그 뿐 아니라 “우리가 실행(enactments)에 참여하는 배제에 대해서도 책임”도 있기에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 것으로부터 배제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사유”(Barad, 2007: 394)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에서 책임은 수행해야 할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세계의 지속적인 내부 작용과 비-행위에 있어 항상 수반되는 필수적 관계 그 자체가 해러웨이가 제시한 바 있는 응답능력이다. (해러웨이, 2021)

4.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inappropriate/d others)과 회절의 장소

회절은 타자성을 차이 생성적인 회절의 패턴에 간섭의 지도를 그리는 것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타자성에 관해, 해러웨이와 바라드는 영화감독이자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트린 민하(Trinh Minha)의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Inappropriate/d others)”(Haraway, 1992: 299; Minh-ha, 1986: 7) 개념과 연관시킨다. 트린의 이 관용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출현한 다문화적, 다민족적, 다인종적, 다국가적, 다성적인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함께 탄생했다. 타자들은 범주의 구분에 착안하는 동일성과 그에 기반한 정치학이, 이전 시기의 지배적이고 근대적인 서양의 네러티브가 제공했던 “자기” 혹은 “타자” 그 어느 쪽의 가면도 쓸 수 없는 자들을 역사적으로 위치 짓는 용어이다.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원본적인 것, 훼손되지 않은 지위를 가진, 특별한 보호 구역에 위치한, 순진무구함의 이질적 시간과 이질적 장소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은 연결을 만들어 내기 위한 관계에 존재하며 회절하기이다. 해러웨이는 트린의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를 동일성에 따라 근거 지어버리는 특정한 분류학적 표식이 아니라 생성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서구의 가부장주의적 서사들이 최초로 육체적 몸이 탄생했고, 그 다음으로 태양을 향해 [이성적] ‘인간’이 태어났다 말해왔다면, 미분적인, 회절된 페미니스트 우화에는 그 다음 세 번째로 탄생한, 여기와는 다른 곳이라 불리는, 즉 간섭에 의해 생긴 패턴으로 구성된 장소인 SF 세계 속으로 출현한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이 있을 것이다.(해러웨이, 1992:299)

해러웨이는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을 사이보그 그리고 최초로 특허 받은 생명인 실험쥐 온코마우스 등으로 지목하고 그들이 그려낸 회절(diffraction)의 패턴을 살피며, 이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과의 친족 관계인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을 그려낸다.

그러하기에,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는 자기 동일성의 전략적 환상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표자/재현자/대리자(representative)를 세우는 정치에 문제를 제기한다.⁸⁾ 이러한 정치는 영원히 타자들을 침묵 속에 가둔 채 복화술사로 작동한다. 그들은 타자를 대리한다, 대표한다, 재현한다 하나, 대리의 대상이나 대리하고자 하는 근거는 대표를 자처하는 자가

8) 해러웨이는 “누가 재규어를 대변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해러웨이는 인간 뿐만 아니라 재규어와 다른 많은 비인간들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는 것에 책임이 있다는 점엔 통감하지만, 이 질문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잘못되었다. 이 질문은 임신중지논쟁에서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던진 질문(누가 태아를 대변하는가?)과 정확히 같다. “누가 재규어를 대변하는가?” “누가 태아를 대변하는가?” 두 문제 모두 재현/대표(대리)의 정치적 기호학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바라는 꿈의 실현에 불과하다. 또한 비인간을 누가 대변/대표/재현/대리하는가?라는 질문 역시 자신을 대변할 길 없다는 단정으로 비인간의 역할을 한정하는 관점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물음은 비인간을 대리자의 보호 관할 하에 놓아두고 영원히 침묵하는 자리에 머물게 한다.

바라드는 인간의 반대항인 비인간 타자를 대리한다는 정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에 관한 민하와 해러웨이의 논의를 이어, 글로리아 안살두아(Gloria Anzaldúa)의 경계지대(Borderlands/La frontera)를 회절의 패턴으로 그려진 타자들이 일으키는 회절의 장소로 제안한다.

안살두아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경계 지대는 미국에 반대하며 출혈하고 있는 제3의 세계인, ‘융합되지 않은 상처 una herida abierta’이다. 경계지대(a borderland)는 계속해서 이행(transition)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모여드는 것은 소위 ‘정상성’이라 불리는 것들의 한계들을 건너가는 ‘횡단자들(los atravesados)’이다. 횡단자들은 ‘서류(documents)’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위반자들(transgressors)이자 이방인들 aliens이다. 무단침입자는 강간당하고, 불구가 되고, 교살되고, 총에 맞는다. ‘합법적인 거주자들은 오직 권력을 가진 백인들 혹은, 그 동조자들이다. 그러나, 안살두아에게 경계지대는 무엇을 가르고 구획하는 ‘선’이나 단절이 아니라 거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라는 넓고 두터운 ‘지대’, “부자연스러운 경계의 감정적 잔류물이 만들어낸 모호하고 비결정적인 장소”, 활발한 뒤섞임을 부추기는 장소이다.(Anzaldúa, 2012) 바라드는 안살두아의 모호하고 미결정적인 경계지대를 회절이 일어나는 장소로 이해한다. 이러한 회절의 장소에서 실타래처럼 엮인 물질의 내부-작용(intra-action)이 실행되며 시공간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행위자들의 연결로 시공간 물질 만들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모호성과 미결정성은 회절의 장소의 가장 큰 특징이며, 회절은 자/타, 있음/없음, 풍요/결핍의 이원론과 이분법적 사유를 넘어서는다. 이는 회절

실험에서 등장하는 회절의 패턴이 빛과 어둠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어둠과 빛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바와 관련한다. 회절의 패턴은 완전히 분리된 빛과 그림자라는 도식에서 벗어난다. 그림자로서 어둠은 빛의 결핍이 아니다. 패턴을 구성하는 빛과 어둠에서 어둠이 기존의 빛에 ‘새로운 빛을 더함으로써’, 즉 ‘이미 받은 빛에 새로운 빛을 더함으로써’ 패턴은 만들어진다. 회절의 패턴에서 어둠은 빛 내부에 자주 떠돌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빛이 추방한 타자가 아니다. 그래서 회절의 패턴이 그려내는 어둠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움이다.

이 점에서 회절의 장소는 명석 판명함에서 벗어나 동일성과 차이 개념 그리고 이분법을 퀴어링(queering)하고 이질적인 것의 ‘함께 있음’ 그 자체를 사유한다. 바라드에 따르면, 이는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 자체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곳에 우리 자신을 놓고 분산하여 이미 존재했던 것(과거)과 존재할 것(미래) 모두와 얽혀낸다. (바라드, 2014)⁹⁾ 이러한 회절은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들이 미친 간섭과 효과를 그려내어 고유한 물질적 역사성과 어떻게 물질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려는 것, 세계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것, 행성의 역사화된 물질로서 신체라는 장소의 경계를 재구성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공간 물질 만들기이다.

5. 나가며: 인정의 정치를 넘나드는 회절의 정치

앞서 살펴보았듯, 행위자의 행위는 인간중심주의가 상정하는 주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실천과 달리, 행위자들이 엮인 관계성에서 비롯한 행위 결과를 수용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행위는 인간 행위자

9) 시간은 근대의 인간중심주의가 상정하는 선형성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가 엮힌 다층의 시간성들로 두터운 시공간 물질이다.

만이 아닌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 능력과 연결되어 얽히면서 행위자들이 발휘한 효과와 간섭의 패턴을 그려내고 분산하는 회절적인 것이다.

회절은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분화-얽힘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재)구성하여, 동일성에 기반한 인간중심주의와 이분법의 구획을 넘나들고 그 자체를 문제시한다. 바라드의 말처럼 회절은 차이 그 자체이다. 이 점에서, 회절은 오랫동안 위협적인 타자성, 존재론적 부적절함, 변형의 힘을 지닌 인간적 경계 바깥에 있는 괴물적인 것과 맞닿는다. 이러한 괴물은 비인간적 전회를 통과하며 인간 행위자와 함께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는 비인간 행위자이자 이들의 연결이다.

회절은 바라드가 제시했듯,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행위자 연결과 인간과 비인간적 삶의 물질적 조건을 연결하여 변화의 가능성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실행이다. 이는 반복적으로 다시 열리는 “불확정성의 역동성, 세계를 다른 방식이 아닌 특정한 방식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급진적 개방”이자, “세계를 다르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세계가 하는 일의 일부로서 나를 존재론적 공간(시공간)을 열어내는”(바라드, 2021: 17) 것이다. 이러한 회절은 서로 다른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엇이 배제되며, 그러한 배제가 어떻게 중요해지는가를 조명하고 차이를 물질화를 실행하는 존재론적인 것으로서 제시한다.

이러한 회절의 정치는 자유주의 휴머니즘과 상충되고 정체성과 주권적 자아에 기반을 둔 전통적 정치 담론과 무관하며 자타 이분법과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한 인정의 정치를 넘어선다.¹⁰⁾ 그러나 회절의 정치가 지향하는 바는 인정의 정치를 거부하거나 대립하는 것과 무관하다. 회절의 정치의 관심은 위기가 일어나는 장소에서 타자가 간섭한 패턴을 찾아내고,

10) 정치적 명령으로서 인정 투쟁은 정체성을 사회에 인정을 요구하고 승인 받는 틀에서 작동하고, 이런 인정을 통한 합법화를 주창한다. 인정 정치는 가지성(intelligibility)를 중심에 삼고 차이와 타자성을 지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새로운 시공간을 창출할 정치의 자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해러웨이가 지적하듯, 세계와 무관한 초역사적 보편 자리, 본질적이고 고정된 위치를 상정하는 원근법적 관점은 환상에 불과하다. 회절의 정치 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외부자의 관점을 갖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는 관측하는 현상 내부에 있는 관측하는 위치의 행위자가 분리 불가능한 얽힘의 상태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얽힌 것으로부터의 구별과 분리가 관계적 의미에서만 그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치는 배타적 성격을 지닌 어떤 규모를 지닌다. 그러하기에 연결은 기존의 중첩된 척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척도가 서로를 통해 주체적으로 포섭 되는 것이다. 이는 중심에서 주변으로 더 큰 규모에서 더 작은 규모를 아우르거나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나아가는 유클리드적 수량과 다르다. “예를 들어, 개인, 가족, 공동체, 지역, 국가, 전 세계의 다양한 척도는 어떤 물리적 크기 개념에 따라 기하학적으로 중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통해 내재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자 비유클리드적 중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바라드, 2007)

따라서 회절의 정치는 불확실성과 미결정성 그리고 우연성을 동반하여 비유클리드적으로 중첩하는 위치에서 다중 위기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정치의 장소를 마련한다. 다중위기는 바로 타자의 패턴이 그려진 자리이며 결코 보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장소의 특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 그리고 우연성이라는 다중위기의 상황에서 회절의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이다. 이 글은 그에 대한 몇가지 제언으로 마치고자 한다.

우선 제일 필요한 작업은 물질화의 계보학을 실행하며 “새로운 좌표계를 발명”(라투르, 2023: 44)하는 ‘회절 장치 만들기’이다. 이러한 장치는 신체와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장치는 권력이 생산적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적-비물질적 도구이며 행위 내적 역동성을 통해 공간-시간적 관계의 위상적 다양체를 반복적으로 재구성(바라드, 2007)함으로써 만들어진

다. 회절 장치의 행위성은 인본주의적 궤도에서 벗어나 비인간과 인간 행위자의 연결망에서 작동하기에, 인간 행위의 영역과 가능성을 넘어서는 행위성의 시공간이 훨씬 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회절 장치의 작동은 라투르가 “한 행위자의 이해나 의도를 다른 행위자의 언어로 치환하는 프레임 만들기는 행위”이며 “행위자-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제시하는 번역의 실행이다.

다중 위기와 재난의 이종적 연결이 타자의 패턴을 흐릿하게 만들고 단순화하는 블랙박스화를 동반하여 참여와 책임을 가로막기 때문에 회절 장치가 실행하는 번역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번역은 블랙박스화된 재난을 펼치는 과정이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추적과 연동하며, 얽힌 관계에 응답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번역에서 추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추적 행위는 블랙박스를 고립된 장치가 아니라, 관계로 형성된 일시적 ‘뭉침’으로서 해석하고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이는 중심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속에서 꼭 지나쳐야 하는 지점을 구성하는 ‘의무 통과점’을 통해 네트워크를 규범화한, 권력의 기원과 효과를 설명한다. 그 뿐 아니라, 무엇보다 번역에서 추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는 펼쳐진 이종적 네트워크를 설명의 자원에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번역, 추적, 연결을 실행하는 회절 장치를 만들어냄으로서, 회절의 정치는 전유할 수 없는/부적절한 타자와의 얽힘에 윤리적으로 응답한다. 이러한 타자는 아직 지어진 적 없는 세계 그리고 닿아 본 적 없는 시간성에 거주하는 세대이자, 인간중심주의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그 바깥에서 함께 공존하는 비인간 행위자일 수 있다. 회절의 정치는 미래의 세대와 비인간 행위자를 지금 하는 행위의 평가자, 윤리적 대화자로 상정하는 방식을 통해 시공간적 연속체를 지탱해나가며 “과거와 미래를 모두 고려하는 거주 형태”(라투르, 2023: 48)를 제안하면서, ‘인간의 종을 넘어 미래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은주. 2023a. “사물들의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폴리스와 행위자 네트워크-블랙박스를 펼치는 물의 정치학을 향하여.” 『도시인문학연구』 15(1):107-129.
- _____. 2023b. “비인간 전회의 지형과 신유물론: 읽기, 쓰기 그리고 문학적 생산.” 『현대비평 2023 가을』 16:16-40.
- 김홍중. 2022. “21세기 사회이론의 필수통과지점: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 이론.” 『사회와 이론』 43:7-56.
- 김환석. 2001. “STS(과학기술학) 와 사회학의 혁신: 행위자연결망이론(ANT)을 중심으로.” 『과학기술학연구』 1:201-234.
- 모랭, 에드가·최연구. 1999. “불확실성의 21세기, 어떻게 맞을 것인가.” 『당대비평』 5:22-37.
- 라투르, 브루노. 2023. 『존재양식의 탐구: 근대인의 인류학』. 황장진(역). 고양:사월의책.
- _____. 2021.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박범순(역). 서울:이음.
- _____. 2018. 『판도라의 희망』. 장하옥·홍성욱(역). 서울:휴머니스트.
- 샤비로, 스티븐. 2021. 『사물들의 우주: 사변적 실재론과 화이트헤드』. 안호성(역). 서울:갈무리.
- 시몽동, 질베르. 2011.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양식에 대하여』. 김재희(역). 서울:그린비.
- 클락, 앤디. 2015. 『내추럴-본 사이보그: 마음, 기술, 그리고 인간 지능의 미래』. 신상규(역). 파주:아카넷.
- 해러웨이, 도나. 2007. 『겸손한 목격자@제2의 천년. 여성인간? 앙코마우스TM를 만나다: 페미니즘과 기술과학』. 민경숙(역). 서울:갈무리.
- _____. 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역). 서울:동문선.
- _____. 2021. 『트러블과 함께 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최유미(역). 서울:마농지.
- 홍성욱. 2010.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서울: 이음.

(2) 국외문헌

- Anzaldúa, Gloria. 2012. *Borderlands/La Fronterea: The New Mestiza*, San Francisco: lute books.
- Barad, Karen. 2003. "Posthumanist Performativity: Toward an Understanding of How Matter Comes to Matter."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8(3):801-831.
- _____. 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n&London:Duke University Press.
- Barad, Karen. 2008. "Living in a Posthumanist Material World: Lessons from Schrödinger's Cat," Anneke Smelik and Nina Lykke ed. *Bits of Life: Feminism at the Intersections of Medi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165-176.
- _____. 2010. "Quantum Entanglements and Hauntological Relations of Inheritance: Dis/continuities, Space Time Enfoldings, and Justice-to-Come," *Derrida Today* 3(2):240-268.
- _____. 2014. "Diffracting Diffraction: Cutting Together-Apart." *Parallax* 20(3):168-187.
- Barad, Karen & Gandorfer, Daniela. 2021. "Political Desirings: Yearnings for Mattering Differently." *Theory & Event* 24(1):14-66.
- Grusin, Richard. 2015. "Introduction." *The nonhuman turn*,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orin, Edgar, Kern, Anne B. 1999. *Homeland Earth: A Manifesto for the New Millenium*, New York: Hampton Press.
- Latour, Bruno. 1992. "Where Are the Missing Masses? The Sociology of a Few Mundane Artifacts," W. Bijker & J. Law, eds.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Massachusetts: MIT Press:225-258.
- _____.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nh-ha, Trinh T.. 1986. "She, The Inappropriated Other." *Discourse* 8:11-37.
- Haraway, Donna. 1992. "The Promises of Monsters: A Regenerative Politics for Inappropriate/d Others," Lawrence Grossberg, Cary Nelson, Paula Treichler eds. *Cultural studies*, New York : Routledge:295-337.

Abstract

The Multiple Crisis Ara, the Non-human Turn and the Politics of Diffraction

Kim, Eun-Joo
(University of Seoul)

The situation of multiple crises, which refers to the compound crisis of heterogeneous phenomena, is in full swing as a global planetary disaster, starting with the pandemic caused by the COVID-19 virus.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ors and their connections in the search for new political arrangements in the context of multiple crises through the “non-human turn”. The article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meaning of the non-human turn is explained, and Bruno Latour’s concept of networks of actors is linked to Haraway’s idea of diffraction in optical instruments. Since agency depends on superimposing, entangling, and connecting the actions of different actors, he relates the concept of diffraction as a pattern of interference. This diffraction passes through Barad’s quantum understanding and materializes as a pattern of superimposition, entanglement, and interference from non-appropriable others. These entanglements, Barad explains, reveal relations of obligation that are entangled in traces of othering and thus entangled with otherness. In particular, Barad emphasizes the ambiguity and indeterminacy that characterize diffraction,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 politics of diffraction that moves beyond binary thinking and emphasizes the connec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Key words: Actor-networks, Barad, Diffraction, Haraway, Multiple crises, Non-human turn

34 다중위기 시대, 비인간 전화와 회절의 정치

- ▮ 투 고 일 : 2024년 3월 17일
- ▮ 최초심사일 : 2024년 4월 8일
- ▮ 게재확정일 : 2024년 4월 10일